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파리와 박물관



2011년 프랑스 내 박물관 방문객 수

순위	박물관	방문객	소재지
1	루브르	8,413,995명	파리
2	베르사유	7,721,244명	베르사유
3	퐁피두 현대 미술관	3,786,221명	파리
4	오르세 미술관	3,144,449명	파리
5	전쟁 박물관	1,427,425명	파리
6	개 브랑리 박물관	1,326,154명	파리
7	카르나발레 박물관	1,091,105명	파리
8	프티 팔레	695,755명	파리
9	오랑주리 박물관	690,958명	파리
10	파리 시립 현대 미술관	685,576명	파리

〈자료:르 주르날 데저르〉



오르세 미술관의 중앙 홀. 오르세 미술관에는 19세기 회화와 조각이 전시되고 있다.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예술품 소유권 국민에게로... 박물관에 스민 대혁명 정신



뤽상부르 궁의 모습.



가장 최근 개관한 국립 개브랑리 박물관.

“박물관은 사회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중에게 개방된 비영리 기관이다. 연구와 교육, 재미를 목적으로 인간 및 그 주변의 유무형 문화재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고 후손에 물려준다.”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내린 박물관의 정의다. 그러나 파리지역에 박물관이란 문자로 나열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인의 수집癖은 유별나다. 할머니가 갓난아기 때 사용했던 요람을 그 손자에게 물려주거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안고 있던 인형이 딸의 손에 들려 있는 일은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성만으로 이들이 갖는 박물관의 의미를 설명하기란 역사가 있어 보인다. 현대에 와서는 파리의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첨병으로, 흔히 말하는 ‘연기 없는 굴뚝’이 됐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저자거리의 민초들에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준 박물관은, 민주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프랑스의 첫 박물관은 수도 파리가 아닌 프랑스 동쪽의 보장송에서 생겼다. 보장송은 갈레, 랭스, 로잔느 등과 함께 로마에서 영불해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가톨릭 신부 장-바티스트 브야조는 1694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회화 11점과 조각 등 예술품 수십 점을 보장송 도심의 베네딕트 수도원에 기증하고, 일주일도 못 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파리에서 박물관이 문을 연 것은 이로부터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다. 뤽상부르 박물관은 1750년 100점에 가까운 회화가 뤽상부르 궁의 ‘마리 드 메디치 갤러리’에 전시되면서 첫 선을 보였다.

궁의 동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가족’을 비롯해, 티치아노, 라파엘로, 램브란트 등의 회화가 전시됐다. 궁 서쪽에는 루벤스가 그린 마리 드 메디치 초상화 시리즈가 내걸렸다.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루이 13세의 어머니였던 왕비 마리 드 메디치는 17세기 뤽상부르 궁을 사들이고 이곳에서 섭정을 펼쳤다. 파리의 첫 박물관에 전시됐던 명화들은 이로부터 50년 뒤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 뤽상부르 박물관은 1780년 문을 닫았고, 30여년이 흐른 뒤 다시 문을 열었다.

파리의 첫 박물관인 뤽상부르 박물관은 르네상스를 주도한 유명 화가들의 회화가 다수 전시돼 대중에게 공개됐다는 의미는 있으나, 관객은 주로 외국에서 온 왕족이나 귀족, 프랑스 국내의 상류층에 제한됐다는 한계를 갖는다.

루브르 박물관의 개관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루브르 박물관 역시 왕궁으로 사용되던 장소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뤽상부르 박물관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루브르 궁이 박물관으로 개관한 1793년은 1789년 시작된 대혁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다. 루이 16세가 콩코르드 광장의 단두대에서 참수당한 것이 바로 1793년 초다.

대혁명이 없었어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왕족들의 소장품과 왕의 거처가 베르사유로 옮긴 것을 감안하면 루브르가 박물관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뤽상부르 박물관이 문을 열었을 때 마리 드 메디치를 비롯한 왕족의 소장품은 이미 1800점에 달했다. 이후로도 왕과 그의 형제들은 경쟁적으로 회화들을 수집했다. 뤽상부르 박물관이 문을 닫은 1780년부터 루브르 궁을 박물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첫 박물관 뤽상부르, 상류층만 관람 허용 대혁명 시작후 교회·왕족의 예술품 몰수 문화 민주화 공표해 국민 모두에 평등권

그러나 혁명이 없는 상황에서 루브르 박물관이 개관했다면, 뤽상부르 박물관에 비해 규모가 조금 더 클 뿐 다른 점이 없었을 것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첫 공식 명칭은 ‘공화국 예술 중앙 박물관’이었다.

1789년 11월 공표된 법은 “성직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그들이 가진 것 역시 공공의 것이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1792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와 왕가의 재산은 몰수됐다.

의회는 1792년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폭정에 의해 조성된 기념물들이 더 이상 프랑스 국민의 눈에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왕족이 가졌던 예술품의 소유권이 국민에게로 돌아감을 천명한 것이다. 이같은 기조는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 전반에 남아 있다. 드골 대통령은 1959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문화부’라는 부처를 만들어 앙드레 말로에게 장관을 맡겼다. 문화부의 설립 취지는 프랑스 내 주요 유산에 대해 최대한 많은 프랑스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을 살려주는 예술 창조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문화적으로 제 2의 부흥기를 맞았던 1980년대에는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그랑 루브르, 오페라 바스티유, 국립 도서관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됐다. 자크 랑의 당시 문화부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각자의 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발하고, 창조하고, 각자의 선택에 따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역할이 규정돼 있다. 나중에 교육부 장관까지 역임한 자크 랑은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른바 문화·교육의 민주화다.

현대의 프랑스가 당면한 문제는 오히려 수도 파리와 지방 간의 문화 격차다. 프랑스 내 박물관 입장권 순위에서 상위 10위를 수도권이 차지하는 현상이 이같은 격차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프랑스 북부 도시 랑스에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북동부 도시 메즈에 퐁피두 센터 분관이 각각 들어선 것은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겐하임을 유치해 도시를 탈바꿈시킨 스페인의 빌바오 사례에서 보듯 박물관 하나로 지방 도시를 살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년 바뀐 박물관 법에 의해 프랑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박물관은 파리에만 130곳(전국 1218곳)이 넘는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 박물관을 합치면 그 수는 200곳을 훌쩍 넘는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려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인형, 부채 등 주제에 따른 개인의 소장품으로 꾸민 초소형 박물관까지.

인상주의 미술에 대해 배운 초등학생이 선생님과 마르모탕 미술관에서 모네의 ‘해돋이’를, 오르세 미술관에서 고흐의 ‘자화상’을 감상하고, 현대미술이었다면 퐁피두 센터에서 칸딘스키의 추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파리지역의 특권이다. 하지만 이렇게 파리지역에 가깝지만 한 박물관에도 대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이 스며들음을 지나쳐서 안 된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흥 맛집
광주광역시
062-525-2111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에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